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십대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담	당	강민진
제	목	[보도 바랍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선언
분	량	총 5매

“청소년의 입마저 막아버리는 선거법에 불복종한다”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4월 9일(토) 정오
◎ 장 소	서울 광화문광장
◎ 주 최	청소년 8인 (장은채 18세, 김진규 16세, 서은 16세, 김가을 15세, 노현영 18세, 송민재 14세, 이경은 18세, 치리 16세),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 순 서	_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_ 선거법에 불복종하는 청소년 8인의 선거운동 발언 _ <우리는 19금 선거법에 불복종한다> 선언 낭독

1. 오늘 9일 12시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 8인과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 선거법에 불복종하며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청소년이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남겼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고, 청소년이 선거 관련 UCC를 제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선관위의 해석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현 선거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항의하는 불복종행동의 의미로, 본 기자회견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8인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해 지지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청소년으로서 선거운동을 벌였고, 아래 참여자들의 발언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노동당 비례대표 용혜인 후보의 지지발언이 있었습니다.
4. 오는 4월1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비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선언하는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선거법에 불복종하는
청소년 8인의 선거운동 발언
(발언 내용 요약)

송민재 (14세, 녹색당 지지)

“이 사회는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 사회는 어둡고
재 사회이다.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때문에 녹색당을
지지한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은 친권자들의 경제적 권력이다. 청소년으로서 이런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
례 15번 녹색당을 국회로!”

이정은 (18세, 노동당·녹색당 지지)

“나의 시간은 나를 채찍질하고 미래의 직업과 생계를 위해
입시공부를 할 때만 '귀한 시간'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나
는 시험범위의 글자를 외우는 것보다 창밖의 나무를 보는
것이나 소설을 읽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가치있게 느꼈다.
고등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어서 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그
렇다고 자유로워지지 않는 않았다. 청소년의 삶을 피폐하게 하
는 입시경쟁과 진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학습시간줄
이기와 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노동당과 녹
색당을 지지한다.”

서은 (16세, 녹색당 지지)

“녹색당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
자인 동물들의 권리를 위한 정당이다. 나는 녹색당 당원으
로서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곧 미성년자로서 정치활
동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청소년을 정치
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세력과 그들이 만든 법이
다. 과거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말자고 하면서 여성들
이 남편을 따라 투표할 거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우리의 것이다.
녹색당을 지지한다.”

치리 (16세, 노동당 지지)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것은 ‘철정철
경’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다. 한국은 노동시간도 주5일제
도 아닌 브라질과 비슷하게 세계 1위 수준이고, 학습시간도
세계 1위다. 우리의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학습시간 줄이기를 말하는 노동당을 지지한
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 X까! 정당 투표는 14번으로 해달라.”

노현영 (18세,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후보 반대)

“정의당 예비당원으로서 정의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정의당
에서는 현재 청소년 당원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 사회당에서도 인정받았는데 정의당은 진
보정당이면서 오히려 퇴보를 시키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과거 통합진보당 때 청소년 당원을 제명시킨 책임이 있고
정의당에서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당 지도
부로서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심상정 고양갑 후보를 반대
한다. 내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건 나는 진보적 가치를 지지

하는 것이지 스타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김진규 (16세, 정의당 지지)

“청소년 정의당의 대표이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청소년들은 제대로 당원으로 참여를 못한다. 정의당은 18세 선거권을 말하고 있지만, 청소년 참정권과 가깝지는 않다. 그래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원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시급 1만원, 소득격차 5배 이내로 등 정의당의 정책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당원들을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설득할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정의당을 지지한다.”

장은채 (18세, 노동당·녹색당 지지)

“선거만이 아니라 반인권적 학교 규칙의 문제 등, 청소년들은 일상에서부터 정치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다. 시민의 자격이란 나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현재 청소년의 당원 가입을 보장하고 있고 당 안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있다. 청소년이 예비시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보는 당이므로 녹색당과 노동당을 지지한다.”

김가을 (15세, 녹색당 지지)

“입시학원에서 고통받으며 검정고시와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입시에 찌들어 살고 있다.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못 얻거나 얻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녹색당이 내건 정책이 ‘교육의 녹색화’이다. 이 정책이 입시에 찌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녹색당을 지지한다.”

지지발언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겸 비례대표 후보)

“노동당의 역사에는 항상 청소년 당원들이 함께했다. 온라인게임셋다운제 반대 시위, 짧은 방학 항의 행동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우리는 학생인권법과 학습시간줄이기를 지지하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공약한다.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 행동하는 청소년 분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19급 선거법에 불복중한다” 선언 낭독

청소년 8인 일동

“우리는 ‘19금’ 선거법에 불복종한다!”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공동선언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매년 청소년을 빼놓고 벌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무시당하고 가라앉고 있다.

현재 선거법은 사실상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고 있고, 선관위는 청소년의 입까지 막고 있다. 우리가 정치나 선거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되고 만다.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의 의의를 역설하고, 정치에 대해 토론할 때에도 우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와 어른들은 우리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묻지 않는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의 삶을 동정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어른들이 대신 바꿔주겠다 말하며 우리를 ‘예비 시민’, ‘미래의 유권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우리들의 존재와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우리의 존재와 의견이 무시당하는 한, 우리가 청소년이기에 겪는 불이익과 편견, 차별과 혐오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회가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정치에 나선다.

우리에게는 그들만의 정치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무런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입 다물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19금 선거법에 불복종한다.

2016년 4월 9일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선언
기자회견 참여 청소년 8인 일동

